



김만섭
사) 한국오리협회장

오리 산업도 주요축종에 맞는 종합대책이 절실하다!

필자가 오리협회 회장직을 맡아온 지도 어언 2년 5개월이 지나고 있다. 재임 중에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각 방송사, 신문사 등의 여러 기관 방문과 관련인사를 접견하면서 애로점을 이루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가장 뇌리에 남는 것은 우리 오리 산업이 아직도 기타 가축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명실공히 오리 산업도 양돈, 한우, 낙농, 닭에 이어 5대 축산에 진입한 지 벌써 수년이 지나는 데도 지금까지 기타가축 취급으로 정책사업에서도 외시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였다.

우리가 지금껏 오리 산업을 발전시키기까지는 정부의 지원은 조금도 받지 못한 채, 순수하게 오리 사육업을 비롯한 가공유통업계의 자구노력에 의한 것이었다.

타 축종은 주요가축 즉 식량자원의 범주에 속하여 그만큼 정부의 대접을 받아 왔다고 본다. 우리도 더욱 더 합심하여 정부의 대접 받을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다행히도 2년 전부터 건의한 종오리데이터베이스 사업이 금년에 승인되어 2억1,4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업계의 최초 지원금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지만 처음 시도 되는 것이라 더 감회가 새롭다.

한편 KGPS(한국원종오리 유한회사)설립과 이와 관련한 종축시설현대화사업자금을 금년에 약 20억원, 내년에 약 20억원을 마련하였으며, 군납사업도 늦었지만 다행히 금년 8월부터 800톤 공급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더욱 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원산지표시, 브랜드육성사업,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질병방역대책, 오리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유통구조혁신, 오리사육통계 분기별조사, 생산비조사 등을 건의, 대부분이 정책사업에 반영되어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될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오리 산업을 주요 축종에 걸 맞는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소, 돼지, 닭처럼 항구적인 오리에 대한 시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돌이켜 보면 AI로 피해를 본 경력이 금년까지 세 번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 1일~5월 12일까지 발생했던 AI 발생지역의 가금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6월 29일 경북 경산을 마지막으로 모두 해제하였다.

금년 AI는 전북 김제에서 시작해서 11개 시·도, 19개 시·군·구에서 총 33건이 발생했고, 닭·오리 846만 마리가 매몰·처분되었으며, 이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닭·오리 구매자금·경영안정자금 용자 등으로 총 2,637억원(2008년 6월 26일 기준)이 들어갔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AI 방역은 과거에 비해 발생건수는 많았지만 발생기간을 42일(과거 100일 이상)로 크게 단축시킬 수 있었던 것은 기존 AI 방역지침 외에 재래시장과 수송차량 등에 대한 통제조치가 유효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UN)은 2008년 6월 17일 전 세계 AI 상황에 관

한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와 영국이 신속하고 성공적인 방역조치를 취한 AI 방역 모범국가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렇게 조기에 AI를 극복한 데는 우리 오리업계의 노력도 일조가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오리업계의 피해만 보면 총 피해액이 2,637억원의 절반수준이다. 오리 170만 마리의 살처분비 100억원, 경계지역내 종란 670만개에 30억원, 육용오리 500만마리 구매자금 223억원, 종오리 20만 마리 도태자금 20억원, 종란 28만개 폐기자금 6,300만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 등 873억6천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이와 같은 막대한 자금이 일시에 필요하게 되었다.

만일 이에 소요된 예산의 10%인 87억원만 오리 산업에 투자한다면, 지난 1991년도 수입개방 이후 3천% 성장한 오리 산업의 역량을 돌아볼 때 주요 축산업보다 더 탄탄한 경쟁력 있는 축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세계의 축산농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오리 산업을 주국가축의 범주로 인식을 전환하여 이에 걸 맞는 종합시책(생산, 방역, 도압·유통, 판매소비, 오리개량, 통계, 예산 등)을 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구하는 바이다.

